

한 조선청년의 일본출판계 종횡기

김형찬 지음 「조선인이 본 戰前期出版界」를 읽고 (下)

崔德教

創造社 主人

여기서 잠시, 그 시대에 일부 일본인들이 살고 있던 '쥬오센진을 싫어하는 병'이란 어떤 것이었는지 한두가지 事例를 보기로 한다.

그들이 朝鮮人에 대한 偏見과 차별감정으로 저질렀던 그 罪惡스러운 일들을 어찌 다 말할 수 있으랴. 1923년 東京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關東大地震은 天災요 地變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각없는 일본인들은 그 피해의 분풀이를 무고한 조선인한테 했으니 그때 죽은 人命만도 헤아릴 수 없었다고 한다.

그 病症에는 무서운 것도 많았지만 奇想天外한 것도 있었다. 쥬오센진은 김치를 먹으니 까 입에서 마늘 냄새가 난다고 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꼬락서니들도 적지 않았다. 알미운 것은 조선아이들이 다니는 소학교의 일본인 교사들 중에도 아이들이 도시락 반찬에 김치를 가져오니까 마늘 냄새가 난다고, 그들의 무우지인 다꾸앙을 가져오게 하는 일도 있었다. 생각하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다.

그 시절 민족의 숨결을 노래했던 20대의 젊은 詩人 金容浩는 이렇게 토해냈다.

“제법 썩듯하게 입맛을 다시며 / 김치 깎두기 마늘 냄새를 풍겨 / 나는 <간다> 거리를 지나간다 / 고추가루 잎 하나 들 쫄 / 잇발에 붙어 있어도 / 무어 그렇게 부끄러워 할 건 없다 (中略) / 문득 고향이 눈썹에서 삼삼거리면 / <센진>으로 태어난 팔찌에 흑이 달려 / 오늘도 / 내 노우트엔 / 피가 되어 읽혀지는 글이 있다.”

「간다 거리에서」중에서.

마늘 냄새 아닌, 마늘의 향기를 산뜻하게 입안에 머금고 고추가루 그 빛깔을 자랑하면서 식민지의 한 청년이 동경 한복판<간다 神田> 거리를 활보한다고 생각해 보라. 이 얼마나 민족의 自尊을 보이는 능률한 행동인가!

그만큼 마늘은 우리의 것이요 우리의 자랑이다. 언제부터 우리의 것이냐고 하면, 檀君神話에 마늘과 쭈기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적어도 5천년, 아니 그보다도 훨씬 전부터일 것이다. 고추 또한 남방에서 들어 온 것이기는 하나 그것이 우리의 固有色이 된지도 이미 몇백년이 지났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어떨까? 한 10여년 전에 일본의 어느 출판사에서는 「마늘 健康

法」을 내어가지고 100만부 이상이나 팔린 베스트셀러를 만들지 않았던가. 어디 그 뿐인가. 일본식 스테이크라는 鐵板焼에는 반드시 철판에 통마늘이 꼭 깔리게 된다. 게다가 요즘에는 김치까지 만들어 팔고 있다니, 그 담그는 법은 도대체 누구한테서 배웠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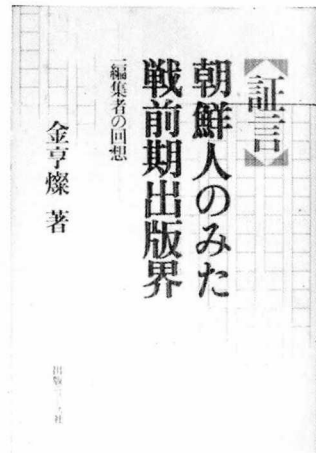
「主婦之友 鮮滿특파원으로 뛰다

1938년, 그에게는 또 한번의 이변이 일어난다. 「讀書新聞」을 그만두고 그야말로 실의에 빠져 있는데, 어느날 이시카와(石川武美 主婦之友社) 사장으로부터 만나자는 전갈이 왔다. 용무인즉, 당시 일본여류계의 명사인 야마다(山田わか) 여사 일행에 참가하여 만주와 조선을 한 3주일 예정으로 한차례 돌고 오라는 부탁이다. 말하자면 「主婦之友」의 애독자 위안 잔치며 시의에 맞는 좌담회도 해보라는 것이다.

야마다 여사는 主婦之友社 주선으로 미국에 건너가서 대통령부인과 환담을 했고, 하와이에서는 애독자대회를 하는 데에도 주역을 담당했던 국제적인 인물이다. 또 일행 중에는 가수도 두어사람이 있었고 프로그램도 어지간히 다채로운데 그는 이런 행사에는 처음이었다. 만주에서는 大連·新京·奉天·安東 등지에서 행사를 하고, 조선에서는 평양을 거쳐 서울에 왔다. 서울서는 東亞日報社의 후원을 얻어 明月館에서 조선의 女流名士 열사람쯤을 모셔다 놓고 좌담회를 연다. 그때 참석한 사람 중에는 李淑鍾·徐恩淑 같은 분들의 이름이 보인다.

이러한 위문여행을 다녀온지 한 보름 쯤 되었을 때 이시카와 사장이 또 부른다. 이번에는 「主婦之友 鮮滿특파원」의 자격을 주면서 만주와 조선을 한달이고 두달이고 간에 특별한 임무없이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오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시카와 사장은 여기에 1천엔이 들어 있다고 하며 봉투 하나를 주는 것이 아닌가. 여비치고는 너무나 많은 액수였다. 그해 8월5일에 東京書籍商組合이 조합원 3천수백명으로부터 거두어 陸軍省에 낸 「國防獻金 金一千圓」과 같은 액수이니, 그에 대한 이시카와 사장의 신임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만하다.

약 40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여행 중에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한 끝에, 朝鮮인이 일본인과 함께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면 언젠가는 밀려나고 만다는 결론을 내린다.



쓰라린 체험에서 나온 결론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홀로서기의 사업을 시작한 것이 소규모의 「書籍通信販賣業」이다.

그렇게 變身을 하고 있는데, 어느날 第一書房의 친구 기노시타(木下)가 찾아와서 하세가와(長谷川巳之吉) 사장의 뜻을 전한다. 처음에는 사업을 시작한 사정을 내세워 사양을 했다. 그러나 기노시타는 몇번을 찾아와 하세가와 사장이 기다리고 있으니 함께 가자는 것이다.

하기야 그도 하세가와 사장을 모르는 바 아니어서 결국 따라가 만나게 된다. 하세가와 사장은 그 자리에서 간곡하게 「支配人」 자리를 맡아 달라고 부탁한다. 그러한 연유로 해서 그는 다짐했던 결심도 지워버리고 第一書房 지배인 자리에 앉게 된다.

하세가와 사장은 豪華本 출판으로 유명했고 「セルパン」이라는 독특한 잡지를 내면서, 美術品 감정도 一家를 이룬 사람으로 著者를 찾아내는 眼目도 대단했다. 그가 지배인으로 있는 동안에 두가지의 베스트셀러가 나왔다. 하나는 오오카와(大川周明)가 쓴 「日本二千六百年史」였고, 또 하나는 「히틀러·나의 투쟁」(室伏高信譯)이었다. 두가지 다 30만~40만부를 돌파하는 기록 이었는데 모두 하세가와 사장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이 회사에서 2년 남짓 있었는데 여기서도 또 한번 흥역을 치르게 된다. 이번에는 사장 부인이 「쥬오센진을 싫어하는 병」을 심하게 앓는 사람이었다. 물론 하세가와 사장은 처음부터 그가 朝鮮人이란 것을 잘 알고 지배인으로 앉게 한 것이다. 그런데 한가지 불찰이라면 자기 부인이 쥬오센진을 싫어하는 병이 있는 지도 모르고 쥬오센진 지배인을 데려왔

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이었다. 하세가와 사장은 그에게 한 약속도 있고 해서 의리를 지키려고 애를 썼으나, 그는 결국 사장 부인 때문에 그만두고 만다.

일본출판배급주식회사의 대변인

1942년 戰時의 國策會社인 日本出版配給株式會社(日配)가 발족한지 얼마되지 않았을 때, 그는 오오하시(大橋達雄) 전무의 초청으로 입사하게 된다. 企劃課長席이라는 직함이었는데, 「席」이란 당장에는 직책이 주어지지 않고 우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뜻이란다. 그후 그는 弘報課長이 되는데 요즘으로 치면 회사의 代辯人인 것이다. 이 오오하시 전무는 다음 해인 몇해 전에 「出版年鑑」 표절 사건이 있었을 때 만났던 東京堂 상무 바로 그 사람이다.

이 회사는 「高度國防國家의 確立」이라는 戰時下の 國策에 따라서 생긴 회사이니만큼 대외적인 弘報가 필요했던 것이다. 당시 이 회사의 기구표를 보면 1室2局6部24課로 되어 있으며 본사 직원수는 5백명이 넘었다고 한다. 과장급은 대개 42~3세였고, 50대의 사람도 있었는데 그는 36세로 제일 젊은 과장이었다. 그가 朝鮮人이란 것은 회사 안에서는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하나의 惡緣과 만난다. 이 회사의 사장은 바로 쥬오센진을 싫어하는 병을 앓는 나머지 그를 「讀書新聞」에서 밀어냈던 예구사(江草重忠 有斐閣사장)였다. 하지만 이 회사의 실권은 오오하시 전무에게 있었으므로 일을 하는 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

사회는 날로 경색되고 출판물의 통제 또한 강화되어 가면서, 「朝日新聞」이 發禁을 당한다. 까담인즉, 나가노(中野正剛 代議士)의 「戰時宰相論」을 실어 도오조(東條英機) 수상의 비위를 건드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가노는 구금되고 당국에서는 자살했다고 공표했으나, 실은 고문에 의한 죽음이었다고 한다. 또 講談社에서 나오는 「キング(King)」는 題名이 敵性語라고 해서 「富士」로 바꾸게 한다. 이때의 발행부수는 110여만부였다고 한다.

그 무렵의 전쟁은 이른바 「南方共榮圈」을 운위하리만큼 한때나마 일본이 勝算을 하는 국면에 있었다. 그러니 이 회사도 출판물의 海外配給까지도 계획하게 된다. 配給이란 말이 요즘은 실감할 수 없는 말이 되었지만, 그때

의 배급의 運用이나 技術이 어지간히 논의되었던 모양이다.

어느날 이 회사에서는 부·과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適正配給’이란 무엇인가? 하고 한 마당의 토론이 벌어졌다. 물론 여러 의견들이 나왔겠지만, 그중 弘報課長은 適正配給이란 “適書를, 適者에게, 適時, 適所에서, 適價로, 適量을, 適確하게 배급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 ‘七適’은 증역회의에서도 채택되어 이 회사의 모토가 되기도 했다. 그는 스포크스맨으로서 각 신문·잡지에 널리 알려졌으며, 弘報課의 직원만 해도 15명이나 있었다고 한다. 그는 적지 않은 부하를 거느리고 일에 신바람을 내면서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또 무슨 일일까? 그의 뒤에는 검은 그림자가 따르고 있었다. 사복 헌병이 그를 미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 그림자를 조종하고 있는 자는 나중에야 안 일이지만 陸軍省에서 출판계의 감시 총책임자로 파견된 시라네(白根孝之)라는 陸軍大學교수를 지낸 퇴역군인이다. 시라네는 도오죠의 심복으로서, 당시 청년들이 암송했던 「戰陣訓」은 도오죠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은 시라네의 작품이라고 한다.

까닭인즉, 「出版弘報」(1944년 7월호)에 그가 쓴 르포를 꼬투리 잡아 “이는 反戰思想家 朝鮮人 金亨燦이 쓴……”하면서 陸軍省에 밀고한 것이다. 시라네는 평소에도 “조오센진인 주제에 국책회사의 대변인을 하는 것은 당치 않다”고 자주 뇌까린 바 있다. 분위기가 점차 험악해지는 것을 알아차린 그는 체포당하기 일보 전에 가족을 그대로 동경에 남겨둔 채 혼자 야간열차로 도망을 친다.

「京城日報」이사 겸 출판국장에 내정

그는 곧장 달려와서 조선 땅을 밟고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 앞에 엎드린다. 16년간을 일본 출판계에서 온갖 수모를 당해가면서도 많은 일을 했던만큼 결국 이들이 그에게 준 것은 무서운 체포령이었다. 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그는 어디에 울분을 터뜨릴 수조차 없는 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다. 결국 내군대의 직장에서 네번 다 朝鮮人이라는 이유로 쫓겨난 것이다.

그럭저럭 지내고 있던 어느날,(1944년 9월?) 그는 조선총독이 새로 부임한다는 신문을 본다. 總督에는 아베(阿部信行 陸軍大將),

政務總監에는 엔도(遠藤柳作), 경무국장 니시히로(西廣忠雄), 경무과장 이시이(石井榮三) 그리고 京城日報 사장에 요꼬미조(横溝光輝) 등 적어도 5~6명은 잘 아는 사람들이다. 그중에는 ‘出版懇話會’ 시절부터 어울리던 친구도 있었고, 또 京城日報 사장인 요꼬미조는 고노에 내각의 內閣情報部長 때부터 인사한 사이로서, 1937년 아베가 총리대신을 할때도 역시 내각정보부장이었다. 그런 사람이 조선에 와서 京城日報 사장이 되었으니 그를 두고 흔히들 ‘民間政務總監’이라고 까지 일컬었다. 또 니시히로 경무국장은 미야자끼현(宮崎縣) 지사를 지낸 사람으로 그와도 舊面의 사이였다.

일이 이쯤 되고 보니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었다. 총독부경무국장실에도 들락거리고 京城日報 사장실에도 출입을 하게 된다. 그의 양쪽 어깨에는 새로운 날개가 생겼다고나 할까. 요즘도 높은 양반을 만나려면 보통사람들은 엄두도 못내는데, 식민지의 한 청년이 총독부 문을 거리낌없이 드나들고 있었으니 소문이 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총독부 출입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를 “東京서 온 朝鮮人인데 總督을 따라 왔다”고 소문이 나돌기까지 했다.

그해 10월 그도 모르는 사이에 니시히로 경무국장은 일방적으로 정무총감의 결재를 얻어 그에게 ‘朝鮮總督府官房囑託’이라는 사령을 준다. 그는 그러한 직책은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 11월에는 경무국에서 朝鮮出版文化協會를 만들어 그에게 專務理事를 맡게 한다. 요즘처럼 출판사가 많은 시대도 아니었으니까 그것은 실상 허울좋은 御用단체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사무실은 총독부 청사 1층에다 차리고 직원도 몇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다음 해인 1945년 출판협회 전무이사 자리를 내놓은 그는 이번에는 京城日報 理事겸 出版局長으로 내정된다. 그러나 전쟁은 敗色이 짙어가면서 모두들 맥이 빠진듯, 정식으로 이사회를 열지 않아서 그는 이사 취임 승락도 얻지 못하고 있었다. 또 출판국장 자리에서도 제대로 일 한번 해보지 못한 채 어우렁더우렁하는데 8월15일 정오, 천황의 항복하는 방송과 함께 조선은 감격의 해방을 맞는다.

누가 人生을 한마당 꿈이라고 했던가? 그 辛酸의 歲月을 숨가쁘게 헤쳐온 그의 이야기가 어찌 꿈이 되겠는가? 그 이야기는 굳더기기가

없고 한결같이 眞率하다. 그 文章은 簡潔하고 어느 이야기에서도 때와 곳이 분명하여, 그야말로 六何원칙에 충실한 資料들이 많았다. 또 누구와 만나는 대목에서는 그 대화를 그대로 옮겨놓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현장감까지 느끼게, 리얼하게 묘사되어 있다. 50년, 60년이 훨씬 지난 일들인데도 이처럼 정확하게 그릴 수 있을까 하고, 또 그가 평생을 두고 일기라도 써온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외람된 말이지만, 九旬을 바라보는 老長이 쓴 글이라고 하기에는 그 호흡은 흔들림이 없고 그 筆勢는 활달하다.


이 책의 내용을 이처럼 길게 옮겨 본 까닭은, 어느 개인의 이력을 소개한다기 보다는 그 時代相을 짚어보면서, 일본 출판계의 지난날의 이야기를 오늘의 우리 젊은 출판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책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獨白하고 있다. “나는 해방후 ‘惡質親日派’로 지목되어 부당한 중상모략을 받기도 했다. 어디에 잡혀간 것은 아니지만 음으로 양으로 가벼운 고문을 받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그것은 엄연한 사실

이었다. 이제 餘命이 얼마 남지않은 나는 이러한 處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도 멀지 않으리! 하고 생각한다. 돌이켜보건대 나의 人生은 무엇이었던가? ……”

참으로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소리인 것이다. 우리는 이 말을 한 인간의 괴로움이 아니라, 험난했던 우리 역사의 신음소리로 들어야 하지 않을까?

金亨燦 先生!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남겨 주신 김형찬 선생, 부디 康寧하시고 天壽를 누리시며 祖國의 山河에서 悠悠自適하시라.



이 아이디어로 살아가는 사람들!

저희 가보라인에서는—
풍부한 경험과 신선한 아이디어로
내용이 좋은 책,
표지디자인이 잘된 책,
보기에 편하고 어법에 충실한 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는 책—
그 책을 만드는 귀하와 함께
새로운 차원의 출판문화를 열어가겠습니다.

- 미술/ 표지디자인, 삽화
- 편집/ 단행본 교정, 교열, 문문, 사보편집
- 집필/ 회고록, 자서전, 광고문안작성
- 번역/ 영어, 일어, 불어, 중국어
- 전산/ 전산조판

출판 소프트웨어—
가보라인

서울 종로구 경운동 88(수운회관 1203호)
T : 722-8238, 720-9032, F : 722-8238